

2016

새 이화, 함께 빛나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2016-2017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2017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204호

Tel [82-2]-3277-2927, 3969

Fax [82-2] 392-3473

Homepage <http://giving.ewh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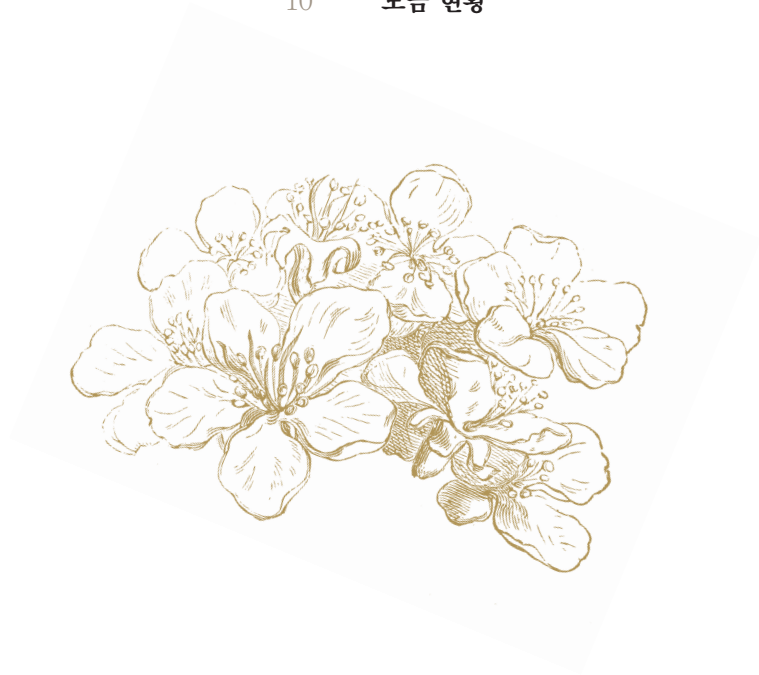
E-mail ewha21@ewha.ac.kr

함께

02 총장 인사

04 기금 안내
발전기금
장학기금

10 모금 현황



빛나는

14 기부자 인터뷰
홍승해 동문
윤여숙 동문
안상수 국회의원
채경령 HOME 상담센터 대표
김기령 동문

26 행사 소식
신축기숙사 E-House 봉헌식
오투기 국제관 제막식
이화아너스클럽 예우 행사
이화가족과 함께 한 아름다운 순간들

이화

34 발전기금 출연자 현황
고액 기부자 명단
전체 기부자 명단

40 예우 안내
기부자 명예의 전당
후원 예우표

42 후원 안내 · 후원 신청서



새 이화, 함께 빛나는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해 이화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화의 새 총장으로서 여러분께서 이화에 보여주신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믿음과 성원으로 곳곳이 격려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화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화는 지금 역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구조개혁,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등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학내사태로 인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내상 등 이화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자대학으로서 세계를 새롭게 창안하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그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화의 힘은 언제나 아무도 걷지 않은 길에서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누가 만든 길을 쫓아가기보다, 우리 이화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이화, 함께 빛나는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먼저 '새 이화'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을 의미합니다.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구조 확립과 단과대학 분권화를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는 개방적 신뢰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대학입니다. 민주적 의견수렴체계와 교직원 복지, 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화 본연의 가치가 제도 안에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대학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이화입니다. 대학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는 환경 구축에 전념함으로써 이화의 진정한 가치와 경쟁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이화를 사랑하시는 후원자 여러분,

'새 이화'가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변함없는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빛나는 세상'을 만드는 이화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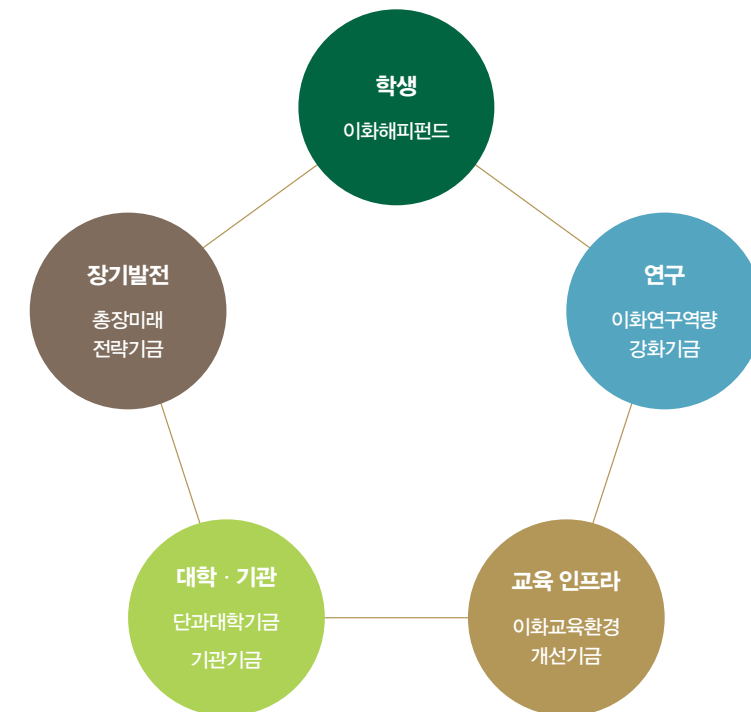
김영숙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이 새 이화의 빛이 됩니다

이화의 시작은 작은 기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83년 미국 오하이오 볼드윈 여사가 미 감리교 여 선교부에 맡긴 선교 헌금은 이화 창립의 소중한 씨앗이 되었고, 숱한 위기와 편견 속에서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화의 기적은 이어졌습니다. 131년 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기적의 역사를 꽃피웠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화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 이화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화 발전기금



한 세기가 넘는 동안 한국의 여성교육을 선도해 온 이화는 '새 이화, 함께 빛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화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이화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화발전기금 후원은 미래 여성교육의 발전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화사랑 장학기금



국·내외 우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계의 인재를 이화로 유치하고, 이화의 학생을 당당한 글로벌 리더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함께 빛나는 이화, 신규 모금 프로젝트

학생 | 이화해피펀드(Ewha Happy Fund)

2017년 9월에 런칭한 이화해피펀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이화를 꿈꾸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화인을 응원하는 기금입니다.

이화해피펀드는 서로 보살피는 건강한 이화 심리공동체 구현을 위한 Healing 기금,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Care 기금, 이화 안에서 미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Dream 기금으로 '다함께 행복한 이화'를 만드는 학생 복지 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이화해피펀드 후원자에게는 '이화 해피 클럽'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정기 후원 시 소정의 기념품과 주차권, 이화달력 등의 후원 선물을 드립니다. 이화의 행복 충전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정기후원 | 월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일시후원 | 제한 없음

기금용도

- 학생상담센터 확대 및 강화
- 온·오프라인 통합심리지원시스템 구축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체계 구축
-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환학생 생활비 지원
- 해외탐사프로그램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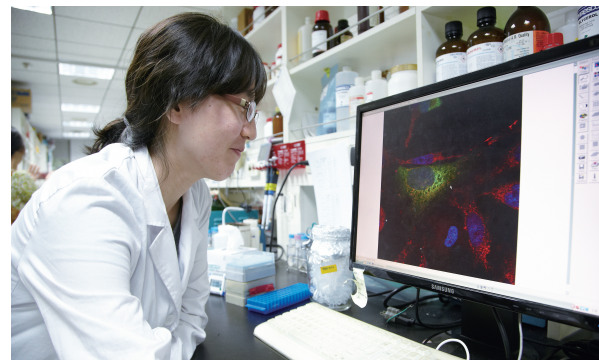
연구 |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노·바이오 기술 등 모든 과학 기술과 지식 정보 분야에 걸친 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이화의 교수·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이화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선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도록 투자하는 기금입니다. 이화의 우수 연구 활동과 미래 학문분야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용도

- 우수 연구 교원 및 석좌교수 지원
- 미래지향적 학문분야 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학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의 연구·실험실습 환경조성



교육 인프라 |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에 최적화된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은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첨단 학습기자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공간이 사고를 확장한다는 믿음으로 미래형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첨단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진화하는 첨단 미래형 교육 현장에서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미래 여성인재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기금용도

- 노후화된 건물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
- 학습기자재 및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향후 이화 미래형 캠퍼스 구축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에 사용



장기발전 | 총장미래전략기금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등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대학 간 무한경쟁 등 최근 대학 경영 환경은 이전과는 다르게 미래에 대한 통찰과 전략적인 판단, 미래 교육에 대한 가치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장미래전략기금은 이화가 미래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새 이화, 함께 빛나는 세상'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영전략기금으로, 이화가 '세계를 새롭게 창안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기금용도

- 학교 비전 및 발전계획에 따른 최우선사업 사용 기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이화사랑 장학기금

장학기금은 이화의 학생들을 학문의 상아탑에 오르게 하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도록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화미래설계장학금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미래설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화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성적 및 가계곤란 정도에 제한 없이 미래 설계에 대한 꿈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후원금액 한 학생당 400만 원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금

이화가 받은 사랑과 130여 년간 축적한 교육역량을 세계 여성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 여성 인재들을 선발해 본교 수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체류비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학교는 등록금을, 후원자는 생활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한 학생을 글로벌 여성리더로 키웁니다.

후원금액 한 학생당 500만 원 (한 학기)
※ 후원기간 자유롭게 선택 가능

선배라면장학금

‘이화의 선배라면 누구나 한 달에 1만 원 정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소액모금 장학금입니다. 선배라면장학금 모금액은 학과별로 집계되어 후원자의 전공 후배들에게 매 학기 바로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약 4,000여 명의 선배가 후원하여 2,000여 명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한 달에 1만 원 이상 정기후원이 가능하며 월 후원금액과 후원기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마주장학금

존경하는 부모님, 스승, 가족을 기리거나 고인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 그 이름을 남기는 뜻깊은 장학금입니다. 오마주장학금을 통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분에게 최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마주(hommage)는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유명명 장학금

장학금 후원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의 성격 및 지급 대상, 장학금액 등을 후원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후원자의 이름과 뜻을 오래도록 이화에 남길 수 있습니다.

제자사랑 장학금

제자들을 위해 은퇴 5년~10년 전부터 매달 꾸준히 장학금을 적립하여 교수님 명의의 장학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완납되면 원금은 보존하고 매해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퇴직하신 후에도 교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제자에 대한 사랑을 이화에 영원히 남길 수 있습니다. 급여공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월 납부액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학금 약정액	월 납부금액
은퇴 5년전	5천만 원	약 83만 원
은퇴 10년 전	5천만 원 1억 원	약 42만 원 약 83만 원

※ 월 납부금액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목돈으로 수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퇴 전 장학금 마련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후원예우

- 300만 원 이상 후원 시 후원자의 성함으로 장학금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 5,000만 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화장학후원이사회' 이사로 위촉해 드립니다.

이화장학후원이사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는 동창, 교직원을 비롯해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이화가족이 21세기 한국사회 및 세계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자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 1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를 개최해 장학기금 현황을 공유하고 장학생과 후원자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아낌없이 보내주신 큰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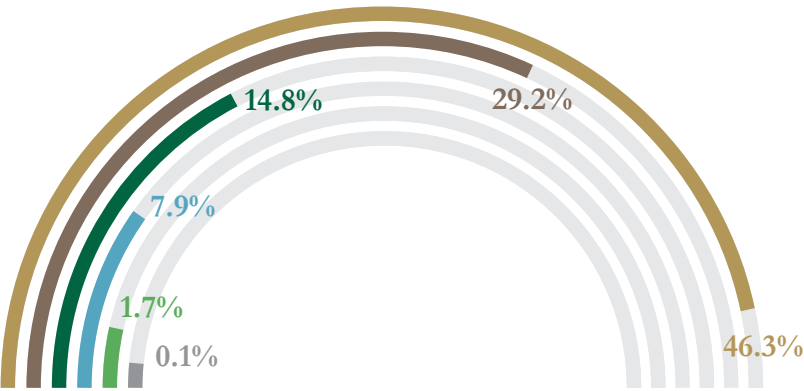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는 후원자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화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2016.3.1~2017.2.28) 이화에 후원해주신 기금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16년도 모금현황 (2016.3.1~2017.2.28)

구분	세부항목	약정금액(원)	약정건수
발전기금	■ 학교사업	17,216,974,942	283
	■ 건축기금	10,849,447,470	268
	■ 단과대학기금	2,962,858,398	400
	■ 기관기금	40,320,830	9
	■ 기타발전기금	626,623,390	21
	소계	31,696,225,030	981
장학기금	■ 장학기금	5,512,554,418	1,766
	소계	5,512,554,418	1,766
	총계	37,208,779,448	2,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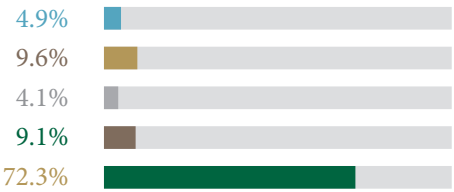
총 모금액
372 억 원

약정 건 수
2,747 건



기부자 분석

기부금액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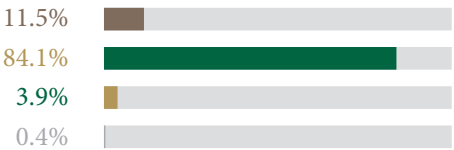
기부금액별	약정금액(원)	비율
■ 1천만 원 미만	1,824,976,335	4.9%
■ 1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3,553,901,815	9.6%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522,744,153	4.1%
■ 1억 원 - 10억 원 미만	3,387,346,289	9.1%
■ 10억 원 이상	26,919,810,856	72.3%
총계	37,208,779,448	100%

기부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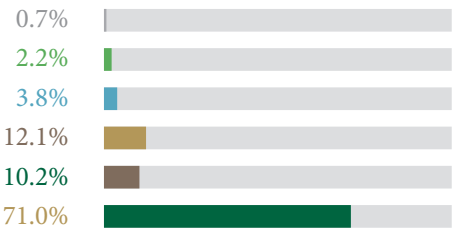
기부주체별	약정금액(원)	비율
■ 개인	12,780,830,064	34.3%
■ 기업	21,216,002,037	57.0%
■ 기관/단체 (각 동창회포함)	3,211,947,347	8.6%
총계	37,208,779,448	100%

이화관계별



이화관계별	약정금액(원)	비율
■ 동창	4,282,907,054	11.5%
■ 기업 및 기타	31,302,310,394	84.1%
■ 교직원	1,462,814,000	3.9%
■ 학부모	160,748,000	0.4%
총계	37,208,779,4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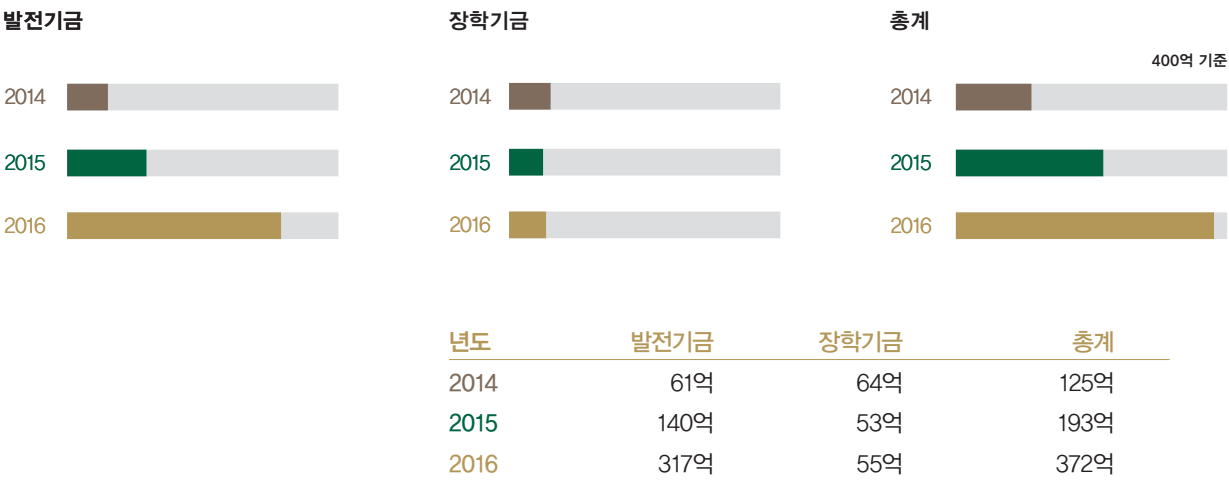
개인약정자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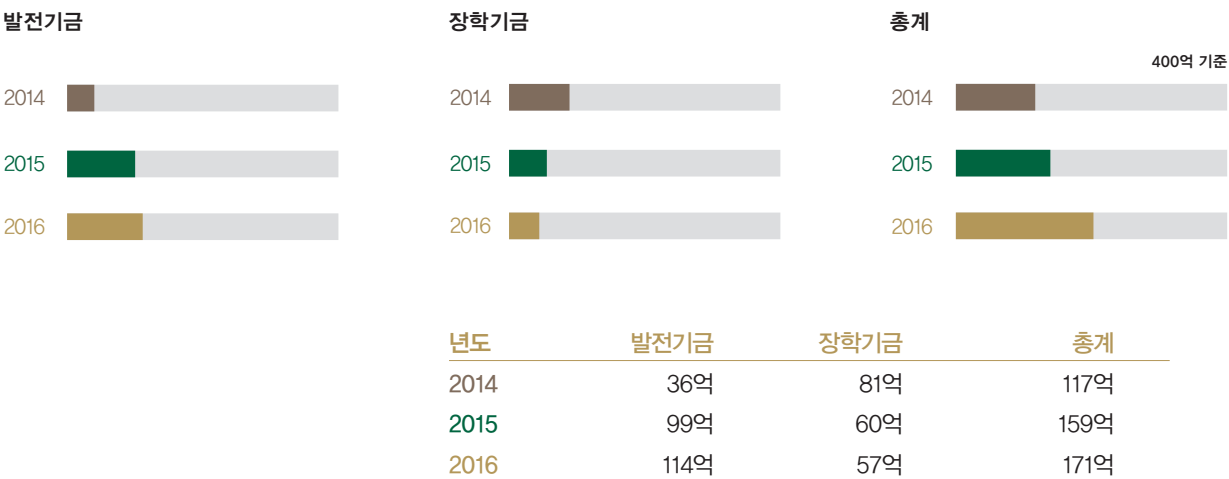
연령별	약정액(억 원)	약정자(명)
■ 30대 미만	0.8억 원	0.7%
■ 30대	2.7억 원	2.2%
■ 40대	4.6억 원	3.8%
■ 50대	14.7억 원	12.1%
■ 60대	12.3억 원	10.2%
■ 70대 이상	85.7억 원	71.0%

2014-2016
3개년 약정 및 입금 현황

학년도별 약정현황 (원)



학년도별 입금현황 (원)



선배라면장학금 모금 현황

선배라면장학금은 약정자의 졸업 학과별로 집계되어 매학기 직속 후배들에게 지급되며, 타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장학금입니다.



2016년도 선배라면장학금 약정 현황

기간	약정 건수	약정액(원)
2016.3.1-2017.2.28	835	152,090,173

현재까지 참여현황 (2010.11.1-2017.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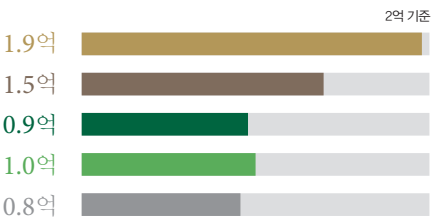
26.1억 / 3,912 선배



2016년도 참여학과 TOP5 2016.3.1-2017.2.28 (약정금액 기준)

학과	약정금액(원)
경영학부	8,070,000
영어영문학부	7,390,000
경제학과	6,960,000
체육과학부	5,258,433
국어국문학과	4,978,900

장학기금 지급 현황 (최근 5학기 기준)



지급학기	지급 학과	장학생 수	장학금액(원)
2015-1	66	217	1.9억
2015-2	67	205	1.5억
2016-1	57	145	0.9억
2016-2	64	162	1.0억
2017-1	54	138	0.8억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여성들에게
최적화된 연구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세계의 뛰어난 여성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
그것이 이화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한결 같은 믿음으로
새 이화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언제나 이화의 곁에서
동행해주신 후원자 분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Interview

홍 승 해 (교 육 57줄)

윤 여 숙 (사 회 62줄)

안 상 수 (제 20대 국회의원)

채 경 령 (경 영 83줄)

김 기 령 (영 문 81줄)



홍승해

교육 57줄

훌륭한 스승과 친구를 선물해 준 이화에 감사해요

주인을 닮은 사랑의 정원 정원은 주인을 닮는다고 한다.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자리한 홍승해 동문(교육 57줄)의 청은동 자택을 찾았을 때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아담한 정원이다. 세월에 굵어진 소나무와 철따라 화사하게 핀 철쭉과 목단꽃, 걸어 들어가는 돌길을 따라 피어난 아기자기한 꽃들과 푸른 잔디 위에 앉아 노니는 두 마리의 작은 새 조각상까지. 소담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안 보이는 곳까지 세심하게 가꿔진 정원이 따뜻하고 부지런한 주인의 품성을 그대로 닮았다. “제가 꽃과 나무를 정말 좋아해요. 이 집을 1964년에 짓고 들어왔으니까 어느새 50년이 지났네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자주 초대해서 정원에서 함께 놀곤 했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못 해요. 자식들은 편한 데로 이사 가라고 하지만 너무 정들어서 떠날 생각을 못 하네요.” 집을 둘러싼 풍경처럼 홍 동문의 미소는 넉넉했다.

이화 동문 네 자매 홍승해 동문은 LG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차남 고 구자승 LG상사 전 사장의 부인이자 구본걸 LF대표의 모친이다. 유명한 재벌가의 며느리이지만, 실제 만난 그는 이웃집 할머니처럼 소탈했다. 본교에 신축기숙사건립금으로 1억 원을 쾌척하고서도 “별로 한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다”며 극구 인터뷰를 사양했던 홍 동문. 어렵게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이화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라고 했다. “남편 사별 이후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부쩍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화인으로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고, 훌륭한 친구들과 스승들을 만나게 해준 이화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화의 스승에게 배운 인내와 사랑, 나눔의 정신이 세상을 사는 큰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홍 동문은 인연이 닿는 곳마다 나눔을 실천하는 데도 열심이다. 홍 동문은 전쟁 중이었던 1953년 부산의 임시 천막교사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여자가 대학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가 완고하셔서 대학은 어렵었고 시집이나 가야 한다고 하셨죠. 심지어 저희 큰아버지는 조카딸이 대학 가겠다고 하자 식음을 전폐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난생처음 어른들 말씀을 거역하고 이화대학에 입학했지요. 만팔인 저로 인해 엄격한 안동 유교집안의 금기가 깨진 거죠.” 평소 부모님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믿음직한 만팔. 그러나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업은 포기할 수 없었다. 큰 언니의 용기 있는 반란(?) 덕분에 둘째 홍애수(약학 60줄), 셋째 홍애영(영문 61줄), 넷째 홍승진(도서관 65줄) 씨까지 네 자매가 모두 이화 동문 타이틀을 달게 됐다. 동생들은 언니 덕분에 이화대학에서 공부하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다며 지금도 감사해 한단다.

드러나지 않게 베푸는 큰 사랑 학업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높았지만 4학년 말에 집안의 권유로 일찍 결혼하게 됐다. 당시는 금혼학칙이 엄격한 때라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해야 했다고. “친구들은 저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모른 척 해주었어요. 제가 무사히 이화 졸업장을 딸 수 있었던 데는 친구들의 도움이 제일 커요”라며 웃는다. 홍 동문은 둘째 며느리였지만 서울에서 시부모님과 친지들 모시며 큰 집 살림을 도맡아야 했다. 가족들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온전히 ‘나’를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성 있게 사는 걸 보면 멋있어 보이고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나와 가정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또다시 가정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가족과 주변을 보듬으며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가꾸는 사람, 드러나지 않게 베푸는 사람. 홍승해 동문은 그래서 아름답다. 글 | 김효정

이화, 진·선·미의 집

윤여숙

존경하는 나의 모교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하면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모교 이화에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숙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늘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해 드리고 알아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제 고민의 일부였지요.” 윤여숙 동문(사회 62줄)은 2016년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해외동창 모교방문 행사에 참여하면서 신축기숙사건립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사랑하는 모교의 기숙사에 부친 윤석태, 모친 장길순, 동생 윤영자 동문(독문 68줄)의 이름을 남길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기부였다. 특히 기부 결정에 가장 큰 계기가 된 분은 어머니였다. 교육의 힘을 알았고,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다. “어머니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저를 비롯한 저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각자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셨거든요.”

삶의 본보기가 되어준 두 스승 윤여숙 동문은 1967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이민 초창기 시절,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의 기술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기술 부서에서는 첫 번째 여성이었다. “저는 이 기회를 제 미래를 위한 좋은 사인으로 여기고 홀로 조용히 김활란 선생님과 김옥길 선생님 두 분께 감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롤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세 번의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캐나다 소수민족 대표자연합회의 이사로서 세 번의 임기를 봉사했어요. 45개의 소수민족 그룹을 대표하여 정부에 대해 다양한 주제에 조언자 역할을 했죠. 이민, 인권, 평등, 반테러주의, 반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인신매매 등이 저희가 다루었던 주제였어요.” 다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

는 주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열심히 일했다. 그 이후에는 캐나다 연방정부 보건성과 함께 그녀의 다음번 도전이 시작되었다. “16명의 선출된 연방정부 보건성 자문위원회 중 한 명으로서 많은 보건 전문가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거치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제 앞에 한계란 없다는 느낌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윤여숙 동문은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최초의 여성 이사장으로 봉사한 경험을 인생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경험으로 꼽았다.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 이화 그녀는 다양한 직책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결과를 맺기까지 ‘이화의 교육’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1886년 스크랜튼 선생님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비전과 용기를 갖고 ‘여성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실천하신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도 선생님이 시작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또한 저의 꿈과 목표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지요.” 이처럼 이화는 그녀에게 늘 살아있는 존재였다. 윤여숙 동문은 특히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진)을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함(선)으로, 주위를 보살피고 타인에 대해 동정심을 잃지 않았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서로의 다름에 대해 싸우기 보다는 우리의 다름을 기뻐하며, 사회에 조화(미)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의 학생들을 위한 짧은 기도문 인터뷰를 마쳤다. “이화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경이와 기쁨, 꿈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기를...”

글 | 강혜송





안상수

제20대 국회의원

좋은 사람 한 명이
수많은 좋은 인생 만들어요

아내를 위한 선물, 정경임글로벌인재장학금 2010년 고인이 된 아내 정경임 동문(의류직물 75졸)에 대한 안상수 의원(제20대 국회의원)의 순애보는 유명하다. 특별히 아내의 모교에 장학금을 기탁한 사연이 궁금했다. “아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다보면 가족들의 기억에서도 희미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내 이름의 장학금은 아내를 위한 저의 마지막 선물 같은 거였어요.” 안 의원은 아내와 사별한 이듬해인 2011년, 아내 이름으로 처음 장만한 안산 아파트(3억 7천만 원 상당)를 본교에 기탁하고 아내의 후배들인 의류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경임글로벌인재장학금’을 조성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이율이 낮아져서 매년 원금을 추가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1억 3천만 원을 추가 약정하기도 했다.

정치와 기부는 타인을 위한 봉사 “정치인의 미담은 미담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가치와 명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의 기부가 낯선 조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치와 기부는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도 하고 기부도 한다는 안 의원. 이화여대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된 것도 아내가 모교에 대한 애착이 컸던 점도 있지만 우리시대의 여성교육을 책임진 곳이 바로 ‘이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능력 있는 여성 지도자와 훌륭한 어머니를 배출한 학교로서 이화에 대해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잖아요? 이화가 그동안 훌륭한 어머니들을 많이 배출해 왔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아들, 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안 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세상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는 좋은 사람 한 명이 수많은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가치투자라고 생각해요.”

실패 있어도 포기 모르는 7전 8기의 삶 안 의원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39세의 늦은 나이에 한성대 의류직물학과 교수였던 정 동문과 결혼한 그는 11년간 아내의 병상을 지키면서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기업인으로 20년을 보낸 뒤 49세 늦깎이로 정치에 입문,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과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승승장구한 그다. 그런데 걸보기엔 화려하지만 속내를 보면 7전 8기의 반전인생이다. 충남 태안의 가난한 어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혼자 인천으로 유학을 와서 과외, 구두닦이, 신문배달, 찻쌀떡 장사 등 안해 본 ‘알바’가 없다고 했다. 고3 때는 열 곳이 넘는 친구집을 전전하며 공부해야했고, 어려운 집안을 거드느라 대학도 4년 늦게 들어갔다. 30대에는 창업했던 회사의 파산을 경험했고,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9전 5승 4패로 절반은 낙선의 쓴맛을 봐야 했다. 그래도 그는 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했다.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겪어서인지 저는 실패가 그리 두렵지는 않아요.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화의 학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웠으면 합니다. 한발 한발 나아가다보면 언젠가는 꿈에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화의 학생들에게 늘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고 당부하는 안 의원. 그에게는 삶을 바꾸는 긍정의 힘이 있다.

글 | 김효정

채경령

경영 83졸

이화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통일 인재들에게

이화는 영생을 얻게 해준 생명의 요람 “이화에서 만난 예수님이 제 인생을 크게 바꾸었어요.” 채경령 동문(경영 83졸)은 공강 시간에 선배로부터 권유받은 성경 공부가 예수님을 알게 된 첫 계기라고 했다. “믿으려면 제대로 옳게 믿어야겠다는 생각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화에서 들은 채플은 제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였거든요.” 이화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종교부장을 했던 채 동문은 그 때의 인연이 이어져 현재 HOME 상담센터에서 성경원리를 바탕으로 한 가정 사역과 생활 상담을 펼치게 되었다고 전했다. “부모님께 육체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화는 제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생명의 요람이지요.” 이화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정했듯, 이화의 후배들도 “대학 재학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새터민 학생을 위한 채경령통일인재장학금 가정사역의 한 부분으로 특히 새터민의 자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채 동문은 2016년 12월, 삼성전자 주식 60주(약 1억 5백만 원)를 ‘채경령통일인재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북한의 핍절한 생활고와 험난한 탈북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새터민이 많아요. 특히 이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맨 땅에서 시작하는 느낌일 텐데,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새터민 학생들에 대한 채 동문의 진심어린 애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새터민 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지원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경령통일인재장학금은 새터민 학생의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화에 입학할

정도면 능력은 충분히 가진 후배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북한을 제일 잘 아는 한국인이며 또한 남한을 제일 잘 아는 북한인으로서 이 나라의 인재일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 한국의 인재로 거듭나 꼭 제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을 환원하라 통일 인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진 채 동문에게 기부란 무엇인지 물었다. “기부는 많이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부의 의미를 알고 기부를 통해서 펼쳐질 사랑의 온기를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각자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시간을, 누군가는 재능이나 지식을 나눌 수도 있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변 사람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면 된다는 채 동문의 기부 철학은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나뉘는 기부를 실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채 동문은 현재의 자신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사회로부터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들을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채 동문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화에서 공부한 우리 이화 동문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데도 조금은 더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품고 있어서일까, 채경령 동문의 환한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기분 좋게 하였다. 이화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채 동문의 마음이 이화 교정 안에 따뜻하게 퍼져나가길 바란다.

글 | 정세진





김기령

영문 81줄

엄마의 이화 사랑, 딸에게 대물림되다

엄마가 사랑한 이화, 딸도 사랑하게 된 이화 이화를 지극히 사랑한 기부자가 있었다. 그런 엄마 덕분에 이화에 입학했고 지금은 엄마 못지않게 이화를 사랑하게 된 또 한 명의 기부자가 있다. 바로 故 김을주 동문(약학 56졸)의 딸인 김기령 동문(영문 81졸)이다.

“엄마는 많이 편찮으신 중에도 투병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오셨어요. 한 번은 장학금 관련 회의를 하고 나왔는데 또 앉아서 후원 약정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괜한 약속을 하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화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故 김을주 동문을 생각하며 김기령 동문과 그의 여동생은 살아생전 엄마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김을주장학금을 이화국제재단에 확대하여 조성하기로 했다.

기부도, 학교사랑도 연습 “제가 학교에 했던 첫 번째 기부는 사실 엄마가 하신 거였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대강당을 보수하는 데 네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네 힘으로 직접 기부하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기부하도록 격려했던 엄마의 가르침 덕분일까. 김기령 동문은 뉴욕에 거주하면서도 본교의 굵직한 건축 사업과 장학 사업에 꾸준히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김 동문은 공립학교 영어교사로서 바쁜 삶을 사는 중에도 10년 넘게 뉴욕지회 동창회 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뉴욕지회 동창회장을 맡아 본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다.

“저는 동창회 일을 하는 것도 결국 모금이라고 생각해요. 지회 발전과 동창들의 친교도 중요하지만 모금을 해서 본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김 동문은 동창회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많은 동창들

이 모교를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기부는 연습이에요.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요. 학교 사랑도 똑같다고 생각해요.”라며 활짝 웃었다.

후배들에게 지속적인 희망을 주는 장학금이 되었으면

“엄마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시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주되 한 번 선발한 학생에게는 끝까지 장학금을 쥐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누구보다 이런 엄마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김 동문은 이번에 기부를 하면서 장학금의 지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 번 선발한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선발이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매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더 필요했고, 결국 기부금액을 당초 예상금액보다 2배 늘려 20만 불로 조성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장학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는 있고, 한 해는 없는 장학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매년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기부금액을 늘리게 됐어요. 동생도 제 뜻에 흔쾌히 따라주었고요.”

잠재적인 장학생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김기령 동문은 언제나 본인보다 장학생들을 먼저 배려했던 어머니 故 김을주 동문을 많이 닮아있었다. 사랑은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김기령 동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이화에 김을주 동문과 김기령 동문이 퍼트린 사랑이라는 바이러스가 진하게 돌기를 기대해본다.

글 | 임희진

신축기숙사 E-House 봉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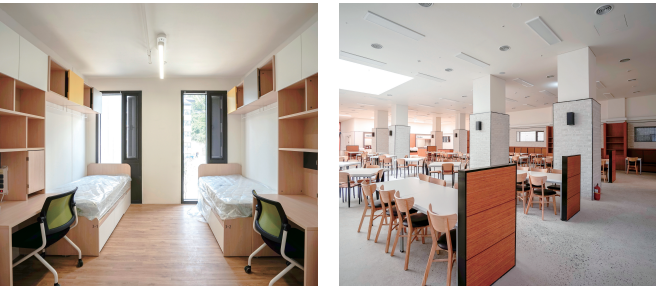
이화인의 꿈의 요람, E-House 사랑으로 완공되다

2,500명의 이화인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꿀 수 있는 최첨단 기숙사 E-House가 완공되어 2017년 8월 30일(수)에 봉헌식을 가졌다. 이화정신을 계승하고 공동체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E-House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모두가 꿈꾸던 이화 공동체 정신의 실현

신축기숙사 E-House 봉헌식이 2017년 8월 30일(수) 오후 2시 E-House SSG홀에서 열렸다. 2014년 7월에 첫 삽을 뜬지 3년 만이다. 이날 봉헌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을 비롯한 교내외 주요 기관장과 신축기숙사건립기금을 후원한 기부자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혜숙 총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신축 기숙사가 완공으로 과거 8.2%였던 기숙사 수용률이 20%로 높아져 전체 4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화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생활 터전으로서 학업과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공간이자 문화와 학술의 역동적인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체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 E-House

지하2층·지상5층인 E-House 8개동과 지하4층·지상5층인 오투기 국제관으로 구성된 신축기숙사는 전체 연면적 약 18,400평, 수용인원 2,594명의 대규모 기숙사이다. 전체에너지의 15%를 태양열과 지열 등 ‘그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한 친환경 미래형 건물로서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신재생에너지 효율1++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미래형 기숙사이다.

이미 지난 2016년 2학기부터 사생들이 입주해 대학 공동체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아파트형 구조의 실내에는 1~4인용의 사실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실을 공유하는 공동 생활을 통해 소통능력과 협동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생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용공간도 눈에 띈다. 200명 수용 규모의 다목적홀과 열람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쿠킹스튜디오, 학생식당 등의 공용 공간 외에도 카페, 편의점, 세탁소, 택배실 등의 시설을 갖춰 기숙사 안에서 모든 생활을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다.



(왼쪽 위부터) 사실, 학생식당, 다목적홀(SSG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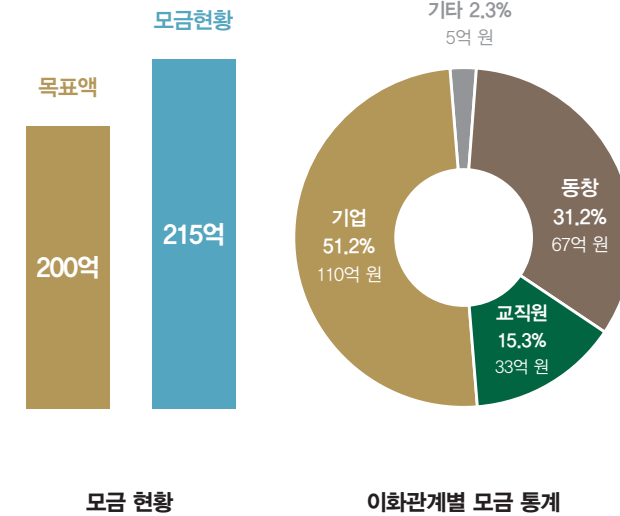


십시일반의 위대한 힘

공사비가 1,200억 원이 소요된 신축기숙사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은 그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이화가족의 손길과 정성이 가득 담겨있기에 매우 특별하다. 2012년 11월부터 모은 신축기숙사건립기금 총 모금액은 약 215억 원, 모금목표액 2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중 기업 후원이 약 절반인 110억 원이고, 1,300명이 넘는 국내·외 동창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한 모금액이 67억 원, 학교 사랑의 마음으로 동참한 교직원 모금액은 전체의 15%인 33억 원에 달한다.



신축기숙사 모금 현황 (2017.8.1 기준)



이름남김으로 영원한 감사

수많은 이화가족의 이름으로 지어진 E-House. 대외협력처에서는 기숙사 건축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준 후원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기부자들을 위한 이름남김 예우를 시행했다. 300만 원 이상 후원한 730여 명의 후원자 이름을 로비 벽면에 부착된 기부자기념판에 새겨 넣었고, 기숙사 룸을 후원한 분들(1인실(1천만 원), 2인실(2천만 원), 3인실(3천만 원))을 위해서는 사실 방문 앞에 기부자의 이름과 후원의 의미를 담은 후원 현판을 부착했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후원한 50명의 후원자에게는 열람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이나 Unit 문 앞에 기부자의 뜻을 새긴 현판을 부착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기부자기념판 이름남김

300만 원 이상 후원 시 기숙사 로비의 기부자 기념판에 이름 등재



기숙사 룸 이름남김

1천만 원(1인실)
2천만 원(2인실)
3천만 원(3인실)



기숙사 공용공간 이름남김

도서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
기부자 현판 5천만 원~5억 원
기부자 네이밍 5억 원~20억 원

특히 5억 원 이상 후원한 고액기부자에게는 해당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네이밍 예우가 진행됐다. 신축기숙사건립기금으로 오투기 주식 1만주(시가 75억 2천만 원)를 기탁한 고 함태호 (궐)오투기 명예회장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 한우리집 C동을 '오투기 국제관'으로 명명하였고, 신세계그룹이 E-House 다목적홀(202동 B271호)에 20억 원을 후원함에 따라 이 곳을 'SSG홀'이라고 이름지었다. 또한 301동과 302동에 있는 열람실 2곳에는 10억 원을 기부한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의 이름을 따서 '목천열람실1, 2'로 네이밍하기도 했다. 많은 이화가족의 열렬한 지지와 후원으로 완공된 E-House, 벽돌 하나하나마다 후원자들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기에 E-House는 그 어떤 기숙사보다 아름답고 특별하다.



(위쪽부터) SSG홀, 목천열람실

E-house 기부자 기념판 제막식



봉헌식에 이어 E-House 202동 헤리티지홀에서 신축기숙사 건립에 도움을 주신 후원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기부자 기념판' 제막식이 열렸다. '기부자 기념판'에는 신축기숙사건립기금 후원자 730여 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기부자 기념판은 본교 건축공학전공 류창수 교수와 디자인학부 유현정 교수(현 대외협력처 부처장)가 협업한 작품으로, 고밀도 압축 세라믹 타일 블록을 조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매우 독창적인 기부자 기념판 형태를 띠고 있다. 기부자 기념판 패넌은 후원 금액별로 A⁺~F타입까지 총 7가지 형태로 구성됐으며, 패넌의 크기와 입체감을 각각 달리하여 비정형화된 패턴으로 세련되게 배치했다. 후원자들은 아름답고 독특한 E-House 기부자 기념판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보는 특별한 재미는 물론, 후원의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오투기 국제관 제막식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글로벌 여성인재로 성장하길”



오투기 국제관 제막식

E-House 봉헌식과 함께 2017년 8월 30일(수) 오후 3시 20분 오투기 국제관에서 제막식을 개최했다. 오투기 국제관은 지하 4층·지상 5층, 건축면적 12,066㎡(3,650평) 규모의 기숙사로 138개의 사실과 체력단련실, 세탁실, 기도실, 독서실 등 438명의 사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숙환경을 갖췄다. 김혜숙 총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화의 글로벌 미래 인재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오투기 국제관 신축의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특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오신 오투기 기업에서 이화와 여성 인재양성의 뜻을 함께 해 주셔서 더욱 특별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함영준 (궐)오투기 회장은 "늘 인재양성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버지의 소중한 뜻을 잇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투기 국제관을 생활하게 될 많은 이화인들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궐)오투기 개인 보유 주식 1만주 기부한 **故 함태호 회장** **故 함태호** (궐)오투기 명예회장(1930~2016)이 2016년 7월 27일(수) 신축기숙사건립기금 협약식을 통해 (궐)오투기 개인보유 주식 1만주를 약정한 데 이어, 2017년 3월 27(월)에는 함영준 (궐)오투기 회장이 아버지 함태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주식 1만주(75

억 상당)를 본교에 전달한 바 있다. 함 명예회장은 본교와 (궐)오투기 주식 기부 협약을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9월 12일에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협약식에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화의 학생들이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오투기 정신으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글로벌 여성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본교는 신축기숙사가 미래 여성인재들의 요람이 되길 바라는 함 명예회장의 큰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한우리집 C동을 '오투기 국제관'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조용한 기부 실천하는 기업 오투기

1969년 창업한 후 47년 간 식품 외길 경영으로 (궐)오투기를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성장시킨 함 명예회장은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조용히 기부를 실천해온 기업인으로도 유명하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4,200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후원하고, 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오투기재단 장학금을 지원한 것은 물론, 최근에도 300억 원 상당의 개인주식 3만주를 공익재단에 남모르게 기부하는 등 80평생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큰 모범을 보였다. 특히 함영준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1,5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상생경영'을 펼치는 등 오투기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화의 특별한 동반자

이화아너스클럽 예우 행사

이화아너스클럽(Ewha Honors Club)은 그동안 이화에 큰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을 이화만의 특별한 기부자클럽으로 모시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발족되었다. 어느새 5년의 시간을 함께 한 이화아너스클럽은 현재 261명의 회원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교류하고 나누는 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화의 소중한 동반자인 이화아너스클럽과 함께 한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



이화아너스클럽 명사특강, 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묻다

2016년 10월 12일(수) 다섯 번째 명사특강 '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묻다'에 이화아너스클럽 회원들을 초대했다. 이날 행사는 이화 교정을 떠나 클래식 마니아들의 성지로 불리는 풍월당(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열렸다. 명사특강을 맡은 박종호 풍월당 대표는 오페라 평론가이자 문화예술칼럼니스트로 활발한 저술 활동과 강의를 펼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불멸의 오페라」 등이 있다. 이화아너스클럽 회원들은 “따뜻한 차와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공간에서 오페라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면서 “오페라 특강을 들으며 아름다운 가을날, 품격있는 문화와 함께 하는 풍요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화아너스클럽 회원들은 오페라 명사특강 중간에 마련된 다과타임을 통해 서로 담소하고 사진을 함께 찍는 등 오페라처럼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나누었다.

이화아너스클럽 문화행사 '뷰티플 마인드, 뷰티플 콘서트'

2017년 4월 19일(수) 이화아너스클럽 회원들을 모시고 마리아칼라스홀(강남구 영동대로)에서 '뷰티플 마인드, 뷰티플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 앞서 열린 오찬에서는 이화아너스클럽 5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화아너스클럽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강연과 공연에 초청해줘서 감사하다. 벌써 5주년을 맞이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감동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2부 콘서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단법인 뷰티플 마인드 채리티의 동서양을 넘나드는 장르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하고 흥겨운 공연으로 채워졌다. 특히 세계 유일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김정민 씨의 연주는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공연을 총괄한 본교 배일환 교수(관현악전공)는 뷰티플 마인드 채리티 연주단원 대부분이 이화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이화의 정신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화의 나눔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며 오히려 우리 자신이 변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뷰티플 마인드 채리티의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의 활동이 이화를 사랑해 기부를 실천한 이화아너스클럽 회원들의 마음과도 맞닿아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낸 행사였다.



EWHA HONORS CLUB

특별 예우

이화에 큰 사랑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당신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예우. 품격 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화아너스클럽의 멤버십을 누리십시오. 1억 원 이상 후원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소 약정액의 20%(2천만 원)이상 납입 시 이화아너스클럽 예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자격

이화 眞
10억 원 이상
후원

이화 善
3억 원 이상
후원

이화 美
1억 원 이상
후원

예우 프로그램

이화아너스클럽
카드 발급

특별 강연
문화행사 초대

신규회원
건강검진권 제공

창립기념
오찬 초청

회원패
증정

특별인터뷰
기사 게재

근조기
서비스

이화가족과 함께 한 아름다운 순간들의 기록

모교 발전을 위해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이화사랑을 실천하는 동문, 교직원 등 다양한 이화가족과 함께 한 현장을 찾았다.

이화만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고 이화가족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습에서 이화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6 은퇴교직원 감사 초청 오찬



대외협력처는 2016년 12월 1일(목) 12시30분 ECC 이삼봉홀에서 ‘2016 은퇴교직원 감사 초청 오찬’을 열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이화를 위해 헌신하신 은퇴교직원을 모시고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1년간의 이화 소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은퇴교직원 60여 명과 송덕수 총장직무대행, 오정화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하여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2016년 우리 이화는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은 선배 선생님들께서 격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은퇴교직원 오찬 행사가 우리 이화공동체의 화합과 성숙의 계기가 되도록 선배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종임 대외협력처장은 대외협력처 사업보고를 통해 “올해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이화미래설계장학생 130명 후원하기, 13,000원 정기후원캠

페인 Ewha Wave 기금, 130주년에 개관하는 신축기숙사건립기금을 중심으로 모금캠페인을 추진했다”면서 “힘든 시기에도 변함없는 지지로 이화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화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바라는 기도시간에 이어,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백년을 살아보니’ 특강시간을 가졌다. 왕성한 저술활동과 강연 활동으로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97세의 철학자는 “백년을 살아보니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고 전제한 뒤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고 나누는 사람은 75세까지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오랜만에 캠퍼스를 찾은 은퇴교직원들은 학교의 상황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고,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이화인의 재능기부 무료법률상담 5주년 기념행사

이화법조인회의 무료법률상담 재능기부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 지난 2011년 9월, 자신들의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이화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가진 이화법조인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재능기부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화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생활 속에서 긴급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때 이화 구성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법률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1%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특히 재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졸업한 동창들을 위해서도 그 문이 열려 있어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 동창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비롯해 가정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까지 이화 공동체 내에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현재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는 총 38명으로 8명은 자문위원, 30명은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화법조인회의 재능기부를 이끌고 있는 최수령 변호사(법학 97졸)는 “처음에 막연하게 가졌던 부담감과 달리, 법률상담을 통해 이화를 졸업한 선후배를 만나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이화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지 상담을 신청해온 분들도 동문 출신 변호사에게 쉽게 마음을 열

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이대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화인들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동문 변호사들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해 왔다. 한편 2016년 11월 23일(수)에는 법률상담 재능기부 5주년을 맞아 감사만찬을 개최하고 5년 동안 중단없이 재능기부로 봉사해 온 변호사 1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외협력처는 이화법조인회와 함께 앞으로도 이화인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화인의 재능기부 프로젝트



이화법조인회 온·오프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2011년 9월 발족 이래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 38명으로 구성된 자문 및 상담위원이 이화인 홈페이지(ewhain.ewha.ac.kr)에서 온라인 상담과 오프라인 상담을 주 1회 제공하고 있다. 6년째 진행 중인 이화법조인회 법률상담 서비스는 이화인의 대표적인 재능기부 프로젝트로,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이화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화금융인회 ‘콩알한쪽’

이화출신 금융인들의 모임인 이화금융인회는 2012년 11월 ‘콩알한쪽’이라는 프로젝트로 재능기부에 첫발을 디뎠으며, 이화인들과 금융지식을 함께 나누고 금융 교육(멘토링·커리어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이화웰빙라이프 온라인 건강 상담 서비스

2016년 6월 발족한 이화웰빙라이프는 생활 건강 분야 전문인 20명의 자문 및 상담위원이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생활실천’, ‘발달건강’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인이라면 누구나 이화인 홈페이지(ewhain.ewha.ac.kr)를 통해 ‘이화웰빙라이프’ 온라인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화의 비전을
찬란하게 빛내준 소중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화가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세계가 도약할 이화 인재들의 꿈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발전기금

Elliot B. Kennel 이숙자 동문(문과 47졸) 자녀 신축기숙사건립기금 5만 달러	곽은아 한국음악전공 신축기숙사건립기금 5천만 원	김영자 영문 61졸 이화여고 장학재단 이사장 Innovation Ewha 기금 5천만 원
신수진 간호학과 교수 간호과학관건축기금 5천만 원	위진영 영문 76졸 영문학부발전기금 5천만 원	윤여숙 사회 62졸 신축기숙사건립기금 1억 4백 45만 원
이병구 (주)네패스 대표 ACE아카데미 1기 Innovation Ewha 기금 5천만 원	임숙자 의류학과 명예교수 Innovation Ewha 기금 5천만 원	장남수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영양학발전기금 외 5천 5백 6십만 원
조종남 의학 75졸 총동창회 고문 의과대학발전기금 6천 5백만 원	故 함태호 (주)오투기 명예회장 신축기숙사건립기금 (주)오투기주식 1만주 (75억 2천만 원)	신세계그룹 신축기숙사건립기금 20억 원 emart SHINSEGAE
(주)신한은행 Innovation Ewha 기금 30억 원 신한은행	대림산업(주) Innovation Ewha 기금 10억 원 DAELIM	성악과교수일동 2001오페라기금 5천만 원
식품영양학과 동창회 식품영양학과 50주년기념 동창사설기금 외 1억 5천만 원	이화국제재단 Preiffer Fund 기금 외 17만 1,640달러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42기 신축기숙사건립기금 1억 150만 원

장학기금

약정기간 2016.5.1~2017.5.31

故 구애련 전 캐나다 기독교 장로회 선교사 구애련선교장학금 63,775 캐나다 달러	김미경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김미경바이오폐드장학금 6천만 원	박하영 약학 77졸 삼정장학재단장학금 외 5천 3백만 원
신경순 교육 70졸 김현곤신경순장학금 1억 원	안상수 국회의원 정경임글로벌인재장학금 1억 3천만 원	이강희 제약 66졸 김치환이강희,유정장학금 외 5천만 원
이소현 특수교육과 교수 유아특수교육장학금 5천만 원	채경령 경영 83졸 채경령통일인재장학금 삼성주식 60주 (104,577,538원)	(재)임당장학문화재단 이화미래설계 (임당장학문화재단)장학금 2억 원
대학교회 대학교회장학금 5천 5백 6십만 원	삼성꿈장학재단 EGPP(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5천 3백 8십만 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일동 식품영양학과 50주년기념 동창 장학금 5천 40만 원
삼성카드주식회사 삼성카드장학금 1억 4천 5백 20만 원	퀄컴(Qualcomm) 퀄컴이노베이션어워드 장학금 외 10만 달러	총동창회 이대총동창회장학금 5천만 원

이화의 꿈을
든든하게 키워준 소중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화의 미래가 희망으로 꽃필 수 있도록 소중한 씨앗을 뿌려주신 분들입니다.

이화는 여러분의 소중한 힘으로 ‘함께 빛나는 이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개인

약정기간 2016.5.1~2017.5.31

강홍순	구학서	김경민	김미선	김선애	김순화	김유리	김재욱	김지영	김학희	김효신	도정애	민아람	박선영	박은경
강규명	구해성	김경민	김미선	김선옥	김순자	김유리	김재현	김지영	김한울	김효정	도현심	민지연	박선영	박은경
강길영	경아영	구형미	김경복	김미숙	김선우	김승진	김유석	김전애	김지영	김해경	김효정	민지원	박선옥	박은경
강나래	경주현	구해정	김경선	김미숙	김선자	김신혜	김유정	김정년	김지윤	김해련	김효혜	동양순	박선진	박은미
강남식	계난경	구화선	김경숙	김미숙	김선화	김아름	김유정	김정수	김지윤	김해임	김훈순	민혜정	박성연	박은애
강다영	계난이	국진주	김경아	김미심	김선희	김아름	김유진	김정수	김지윤	김향희	김휘경	민혜정	박성원	박은영
강명숙	계은영	권경애	김경애	김미영	김선희	김이자	김유진	김정숙	김지은	김 현	김휘연	류경남	박성원	박은영
강미구	계은영	권계숙	김경연	김미영	김선희	김양식	김유진	김정숙	김지은	김현미	김희선	류복희	박경란	박성주
강미정	고경민	권꽃님	김경자	김미영	김성국	김양하	김윤주	김정순	김지은	김현수	김희영	류승윤	박경숙	박은혜
강민경	고광석	권덕화	김경진	김미영	김성남	김여은	김윤주	김정순	김지은	김현수	김희은	류연옥	박경실	박은희
강민선	고기선	권명숙	김경효	김미주	김성미	김여진	김윤진	김정애	김지현	김현숙	김희정	류주희	박경옥	박은임
강민아	고내현	권미경	김고은	김미주	김성숙	김연경	김윤호	김정옥	김지현	김현숙	김희준	류희정	박경은	박소라
강민정	고덕환	권미경	김광석	김미진	김성신	김연신	김윤희	김정우	김지현	김현아	김희은	박경희	박소라	박인숙
강민지	고명신	권미영	김광욱	김미희	김성연	김연하	김은경	김정원	김지현	김현영	김희은	박규민	박소연	박일선
강선미	고미선	권민지	김광주	김민경	김성은	김영교	김은경	김정은	김지현	김현우	나문이	마승연	박규순	박일선
강선아	고선진	권성숙	김광춘	김민경	김성은	김영길	김은경	김정은	김지혜	김현정	나애자	마정강	박규희	박일순
강성기	고수정	권수현	김규현	김민석	김성자	김영란	김은규	김정은	김지혜	김현주	나영숙	마크게스톤	박규하	박일호
강성실	고승덕	권숙경	김금미	김민선	김성행	김영례	김은미	김정은	김지호	김현주	나윤주	마혜전	박금진	박소현
강성의	고승덕	권순희	김기숙	김민선	김성현	김영미	김은미	김정혜	김지후	김현주	남경희	마희자	박금희	박수정
강성화	고연주	권열호	김기정	김민정	김성혜	김영상	김은미	김정환	김지희	김현주	남경희	맹신숙	박기석	박수진
강수빈	고영애	권영금	김나래	김민정	김성희	김영숙	김은선	김정희	김진경	김현지	남민정	명옥희	박기성	박순진
강승희	고예진	권영숙	김나영	김민정	김세미	김영순	김은선	김정희	김진경	김현하	남상민	명지아	박기원	박승수
강애란	고은명	권예슬	김나영	김민정	김세주	김영습	김은선	김정희	김진경	김현화	남송희	명진숙	박동숙	박승희
강영수	고은영	권오란	김나윤	김민정	김세화	김영심	김은성	김정희	김진수	김혜경	남원미	모순영	박명순	박시영
강영은	고은주	권용익	김남시	김민정	김소라	김영인	김은실	김정희	김진아	김혜란	남윤경	문경원	박미경	박신영
강영자	고은하	권유리	김남영	김민정	김소양	김영자	김은영	김정희	김진영	김혜련	남윤선	문규원	박미라	박신영
강옥채	고은희	권유림	김남옥	김민정	김소영	김영자	김은영	김조은	김진희	김혜련	남은미	문금숙	박미란	박신재
강원경	고인미	권유빈	김남희	김민주	김소정	김영재	김은영	김종민	김진희	김혜령	남정연	문남미	박미경	박양덕
강유정	고정숙	권윤주	김다솔	김민지	김소정	김영주	김은영	김종섭	김창숙	김혜리	남정현	문미혜	박미석	박연경
강유정	고평실	권은경	김다윤	김보경	김수경	김영주	김은정	김종완	김창연	김혜림	남지연	문선하	박미연	박연진
강전애	고현강	권은주	김단경	김보경	김수미	김영주	김은주	김종원	김재균	김혜성	남진석	문소연	박미연	박연희
강주현	고현정	권은혜	김명덕	김보경	김수미	김영채	김은하	김종은	김재윤	김혜숙	남진우	문인숙	박미영	박영란
강지나	고희정	권자영	김명래	김보희	김수연	김영철	김은형	김종준	김지학	김혜숙	남혜경	문지민	박미향	박영숙
강지연	공선영	권정미	김명선	김복녀	김수정	김예림	김은혜	김종혜	김태경	김혜연	남혜경	문지혜	박미혜	박영아
강지영	곽경훈	권정은	김명숙	김봉기	김수정	김예미	김은혜	김주연	김태민	김혜연	노영희	문진희	박미희	박영찬
강지인	곽민진	권진희	김명순	김봉주	김수지	김예지	김은희	김주연	김태선	김혜영	노영희	문진희	박민선	박영혜
강진옥	곽상경	권희나	김명옥	김부영	김수지	김예진	김을규	김준경	김태연	김혜원	노영성	문혜성	박민정	박옥현
강초롱	곽소영	권희선	김명옥	김분현	김수진	김옥이	김의경	김준희	김태연	김혜윤	노영숙	문효숙	박민희	박옥희
강하은	곽연정	기숙희	김명자	김빛나	김수진	김완지	김의정	김준희	김태은	김혜정	노옥순	문 희	박보미	박완규
강학수	곽은아	길명주	김명한	김상민	김수진	김용선	김인숙	김지선	김태임	김혜정	노재은	문화경	박보배	박용의
강한주	곽정연	길지나	김명희	김상택	김수진	김용인	김인원	김지연	김태희	김혜정	노정희	문화채	박보영	박원아
강현주	곽희경	김가영	김묘길	김상희	김숙희	김용일	김인자	김지연	김파라	김혜진	노진아	민강자	박상준	박원정
강형석	구민정	김가진	김미경	김상희	김 순	김우선	김인자	김지연	김필서	김홍희	노태영	민경주	박세로미	박유나
강혜선	구애련	김건아	김미경	김서정	김순혜	김옥자	김일화	김지연	김하나	김화숙	노현정	민경희	박서하	박유나
강혜식	구역희	김건하	김미경	김석향	김소영	김원숙	김자영	김지연	김하람	김화영	노경희	박석훈	박유민	박지인
강혜영	구정희	김경미	김미라	김선미	김소옥	김원희	김정자	김지연	김하예린	김화현	민명수	박선경	박윤자	박지인
강효석	구진숙	김경미	김미래	김선아	김소옥	김유경	김재연	김지영	김학진	김효선	단정숙	민선향	박선순	박윤정

박지훈	배현아	서주영	손희정	신상후	안나영	엄대자	우경인	유정현	윤혜원	이명희	이소민	이영숙	이은주	이지수	이향운
박진숙	배현영	서지인	송경자	신성주	안등용	엄선민	우라옥	유종근	윤혜준	이문진	이소영	이영숙	이은주	이지애	이 현
박진아	백다해	서지희	송규동	신수래	안미자	엄지원	우명숙	유지연	윤효진	이미경	이소정	이영숙	이은주	이지애	이현옥
박초롱	백영지	서 진	송남은	신수아	안미현	엄창용	우복희	유채섭	윤창정	이미경	이소정	이영옥	이은지	이지연	이현임
박하영	백세연	서한나	송다영	신수진	안상수	여성희	우소연	유현영	은경아	이미경	이소현	이영은	이의분	이지연	이현정
박한라	백세현	서 혁	송 명	신아영	안서지	여소연	우수현	유혜원	이강호	이미려	이솔희	이영인	이인애	이지연	이현주
박현서	백승연	서현겸	송명원	신영애	안소연	연남경	우재희	유혜자	이강희	이미숙	이송이	이영일	이인영	이지영	이현주
박현숙	백승희	서현수	송미경	신영옥	안소영	염미향	우정주	유호선	이건정	이미애	이수경	이영주	이인자	이지용	이현주
박현실	백 연	서혜경	송미경	신영일	안소현	염여정	우현애	유희정	이건호	이미정	이수경	이영하	이지경	이지원	이현주
박현주	백원옥	석진아	송선자	신은경	안순태	오명경	원은경	육근미	이경숙	이미희	이수미	이영희	이재경	이지원	이현지
박혜경	백재은	선윤정	송선희	신장현	안영호	오명선	원현미	육명희	이경순	이민자	이수민	이예진	이재옥	이지윤	이현희
박혜란	백지연	선재숙	송승영	신재정	안용자	오민화	원현정	윤귀원	이경애	이민정	이수연	이옥경	이재옥	이지은	이형옥
박혜란	백현경	설동호	송아람	신정식	안윤정	오병호	원혜성	윤량주	이경옥	이민주	이수자	이옥재	이재현	이지은	이혜경
박혜리	백혜승	성경훈	송영미	신정아	안윤진	오봉규	위다희	윤명인	이경은	이민지	이수정	이용옥	이재화	이지은	이혜련
박혜림	백혜진	성계영	송영주	신정원	안의정	오서현	위진영	윤묘섭	이경자	이민진	이수정	이용주	이재희	이지은	이혜숙
박혜미	백화정	성낙순	송은주	신지선	안재연	오소희	유경하	윤문선	이경재	이민희	이수정	이우령	이정애	이지은	이혜승
박혜선	백희정	성숙현	송정빈	신지용	안정숙	오소환	유경희	윤민주	이경화	이병구	이수진	이유미	이정민	이지은	이혜승
박혜숙	변성민	성시열	송지선	신지현	안정현	오소덕	유경희	윤병주	이경희	이보람	이 숙	이유미	이정선	이지현	이혜신
박혜숙	변아리	성열찬	송지영	신지혜	안진희	오승규	유금혜	윤봉경	이계정	이보람	이숙현	이유빈	이정애	이지혜	이혜영
박혜영	변옥주	성정순	송지은	신혜림	안진희	오승민	유남수	윤설키나	이광호	이보름	이숙희	이유전	이정연	이지혜	이혜영
박혜영	변지은	성정은	송진아	신현섭	안춘윤	오양자	유남현	윤석애	이국순	이보은	이순남	이유정	이정엽	이지혜	이혜원
박혜영	변진숙	성지윤	송현정	신현주	안현자	오영주	유다운	윤석완	이국희	이보화	이순선	이유진	이정옥	이지혜	이혜원
박혜원	부아름	성채영	송현주	신현지	안혜숙	오용길	유동원	윤석환	이국용	이복자	이순재	이윤희	이정원	이지희	이혜은
박혜원	부아름	성현경	송현주	신혜연	안효정	오유경	유동원	윤설희	이금숙	이상은	이순희	이윤경	이정원	이지희	이혜자
박화자	부아름	성혜진	송현숙	신혜원	안나래	오유현	유동주	윤성원	이금진	이상은	이승미	이윤경	이정원	이지희	이혜진
박효숙	서가림	소영자	송혜자	신혜원	안나래	오윤경	유 리	윤소윤	이금화	이상춘	이승연	이윤경	이정은	이지희	이화정
박효옥	서기분	소현숙	송혜숙	신혜정	양미혜	오윤형	유 리	윤소경	이금희	이상화	이승은	이윤구	이정준	이 진	이화진
박희영	서난주	소효정	송혜영	신화자	양보연	오은경	유 미	윤수진	이기영	이상희	이승주	이윤례	이정진	이진경	이효겸
방나영	서동혜	손근정	송혜진	신효숙	양소정	오은상	유미영	윤순영	이나니	이선규	이승현	이윤선	이정화	이진민	이훈주
방문혜	서 란	손명숙	송희경	신희섭	양수미	오은정	유미화	윤여숙	이남경	이선연	이승희	이윤소	이정화	이진숙	이희숙
방민정	서문근영	손명희	송희경	심남희	양수진	오은진	유박영	윤여정	이남희	이선영	이승희	이윤숙	이정희	이진영	이희승
방보람	서민정	손민지	송희홍	심세성	양수화	오정선	유서영	윤여진	이다숙	이선정	이승희	이윤실	이정희	이찬우	이희진
방봉세	서보람	손범수	송희진	심소연	양승하	오정자	유선자	윤영옥	이덕희	이선희	이신옥	이윤아	이종민	이춘희	임경중
방세훈	서선옥	손서영	신경고	심영임	양승희	오지윤	유성숙	윤영주	이도란	이선희	이신혜	이윤지	이종원	이태숙	임미림
방주영	서선희	손수연	신경순	심우정	양승희	오현애	유세경	윤예지	이동연	이선희	이쌍월	이윤하	이종철	이태호	임미소
방현선	서영호	손예름	신경은	심우진	양아정	오현주	유송자	윤은성	이동은	이성숙	이아람	이윤희	이종희	이태희	임서희
배가영	서윤정	손옥임	신경자	심재윤	양옥경	오현주	유승철	윤은주	이두나	이성옥	이양준	이윤희	이주연	이파라	임석아
배기선	서은영	손외성	신경자	심재인	양은혜	오혜경	유승희	윤재숙	이 라	이성유	이여진	이윤희	이주연	이필두	임선영
배소현	서재찬	손준희	신공범	심정원	양은희	오혜숙	유신애	윤재은	이령아	이성은	이연수	이은규	이주은	이하영	임성은
배순희	서정림	손지봉	신근애	심정희	양정남	오혜숙	유영인	윤정은	이명경	이성재	이연순	이은선	이주현	이하영	임소연
배연정	서정완	손지원	신나나	심 현	양정민	오혜원	유영희	윤주혜	이명분	이성희	이연재	이은영	이주형	이한나	임소현
배옥주	서정원	손지희	신동주	심현주	양정하	옥선옥	유은미	윤지경	이명숙	이소라	이연주	이은재	이준엽	이한솔	임수연
배은영	서정은	손진교	신미진	심현주	양현석	왕미화	유은희	윤현경	이명숙	이소라	이연주	이은재	이준엽	이한솔	임수연
배진일	서정희	손현지	신상근	심상근	양해자	왕아자	유일선	윤혜성	이명자	이소라	이영경	이은정	이지상	이향미	임승윤
배현서	서주라	손효원	신상미	안경숙	어수정	왕혜정	유재희	윤혜숙	이명희	이소민	이영림	이은정	이지선	이향숙	임연규

임영애	장옥빈	전혜진	정영란	조경희	조혜순	채승희	최영희	최형호	한미영	허은경	황소영
임원정	장원경	전효경	정영순	조경희	조혜영	채희선	최옥경	최혜련	한미진	허은금	황수엽
임은영	장유진	전효신	정영진	조기숙	조후자	천규운	최우영	최혜숙	한상준	허정원	황영미
임은주	장윤선	전희경	정영희	조기영	주금미	천지인	최원영	최혜숙	한성희	허정윤	황오숙
임은희	장윤심	전희송	정예진	조명선	주금란	최경규	최원주	최혜영	한세은	허주현	황유정
임재향	장윤정	정경아	정오훈	조미경	주문희	최경진	최 윤	최혜영	한소영	현정옥	황은미
임정옥	장은경	정경화	정원희	조미숙	주미련	최경희	최윤미	최혜원	한수경	현지숙	황의영
임정인	장정윤	정고운	정유선	조미숙	주선경	최구자	최윤서	최혜원	한승희	현학자	황이숙
임종숙	장정은	정광준	정윤희	조미진	주소현	최귀패	최윤영	최혜원	한아란	홍경복	황인경
임죽자	장정임	정권재	정은숙	조민정	주소현	최규련	최윤정	최혜진	한아름	홍경주	황인경
임지연	장정희	정길자	정은주	조빛나	주영주	최길자	최윤정	최혜진	한영숙	홍경희	황인영
임지영	장지원	정나리	정은주	조성민	주은선	최명성	최윤희	최희숙	한영원	홍나영	황인주
임지희	장지은	정다정	정의숙	조성숙	주은연	최명성	최윤희	최희원	한영자	홍명자	황준호
임진아	장향석	정다희	정이와	조성진	주재본	최명화	최윤희	추민경	한영희	홍문옥	황지혜
임한희	장현숙	정덕애	정인희	조소영	주현성	최문경	최은경	추정아	한옥규	홍문표	황철웅
임향아	장현정	정미경	정일례	조수영	지선아	최미경	최은봉	최은주	한윤정	홍미재	황현주
임현주	장혜경	정미경	정재원	조수진	지선하	최미선	최은주	최은지	한은아	홍서연	황혜영
임형찬	장혜숙	정민선	정정자	조수형	지영수	최비숙	최은지	탁지현	한은옥	홍선은	황희상
임혜린	장혜영	정바금	정정희	조수희	지인숙	최빛나	최은혜	태승희	한은주	홍성자	황희영
임혜진	장화인	정서연	정주아	조아라	지태원	최상진	최은혜	태지영	한은희	홍수나	Chun Hi&Joseph Crivello
임화영	저우위보	정서진	정주은	조양희	지현아	최 선	최의숙	최인아	한인대	홍수민	Elliot B. Kennel
장강덕	전경미	정선주	정지영	조영란	진수지	최선민	최인아	편지애	한정미	홍수연	Ms. Norma Jean Hissong
장강희	전경희	정선화	정지영	조영미	진신옥	최선주	최재희	편지애	한정자	홍순애	
장강덕	전길자	정선희	정지영	조영숙	진영신	최선희	최정미	평석구	한정혜	홍순찬	
장경해	전다은	정성민	정지향	조영주	진유진	최성희	최주리	표영희	한정희	홍순희	
장계원	전도규	정성애	정진희	조영지	진지선	최소정	최주영	표지은	한지윤	홍승렬	
장공근	전동호	정성철	정찬근	조영희	최노다카미	최 수	최주희	표현지	한진순	홍승연	
장근영	전루민	정세진	정청자	조옥현	최수경	최지예	피명선	한진영	홍승연	홍승연	
장기남	전명숙	정소연	정춘화	조용식	최속경	최지원	피상순	한진희	홍연기	홍연기	
장길효	전미숙	정소현	정태원	조윤영	차남희	최순영	최지하	한향림	홍연식	홍연식	
장남수	전미연	정송희	정현주	조윤정	차민선	최순용	최지현	한혜기	홍영미	홍영미	
장명수	전상희	정수연	정현희	조윤정	차민아	최순희	최진아	하경혜	한혜영	홍용희	
장명옥	전선희	정수진	정혜미	조윤희	차선신	최승옥	최진자	하누리	한혜주	홍유빈	
장 민	전성아	정숙원	정혜선	조은경	차승순	최승현	최진호	하선영	한혜준	홍윤정	
장병천	전신자	정숙현	정태욱	조은미	차영란	최승희	최충자	하은희	한후재	홍은아	
장본영	전영미	정숙형	정혜원	조은미	차인순	최시원	최한나	하지연	함영림	홍은희	
장서진	전영자	정순명	정혜진	조은미	차정민	최신우	최현만	하현성	함정연	홍진주	
장서희	전윤옥	정순희	정호인	조은아	차주희	최애숙	최현숙	한경숙	함정혜	홍혜진	
장 선	전은경	정슬기	정호진	조은정	차현진	최연미	최현숙	한경아	함주현	홍화자	
장성실	전은슬	정승은	정효정	조인영	차혜숙	최연숙	최현숙	한경원	함지윤	홍희정	
장성원	전지원	정아림	정희성	조인호	차혜원	최영미	최현영	한경화	함태호	황경수	
장세정	전지현	정애라	정희자	조재경	차효성	최영숙	최현정	한경희	허금희	황미경	
장세현	전진희	정연경	정희정	조정희	차희원	최영신	최현주	한규영	허보람	황미경	
장수미	전평자	정연성	정희진	조종남	차희자	최영아	최현주	한기정	허선애	황미영	
장아름	전혜경	정연정	제갈숙경	조한나	채경령	최영은	최현주	한명선	허수경	황상욱	
장영은	전혜림	정연주	제연희	조행자	채명숙	최영주	최현진	한명희	허양임	황선경	
장영주	전혜진	정연화	제환정	조혜경	채성령	최영진	최형인	한미라	허예지	황선희	

기업 및 단체

(재)오투기재단	광주웰치과의원	사회학과 동창회	의류직물학과동창회임원일동
(주)국제종합물류	교육행정전공 졸업생 모임	삼성꿈장학재단	이대노동조합
(주)라우러스	김종현치과의원	삼성카드주식회사	이대부초26기졸업생
(주)삼구아이앤씨	남캘리포니아 간호대학동창회	상해이화동문회	이화ALPS동창회
(주)신세계	남캘리포니아지회 동창회	샌프란시스코지회	이화국제재단
(주)신중성어학원	네파스	성악과교수일동	이화민주동우회
(주) 신한은행	뉴욕지회	세기HE	이화어린이연구원 부모회
(주)신흥	대림산업(주)	송원 김영환 장학재단	이화트리오
(주)아모레퍼시픽	대신교회	슈퍼리어홀딩스	일곡문화재단
(주)영원무역	대전동창회	시카고지회 동창회	재단법인 영도육영회
(주)에남아이앤씨	대학교회	식품영양학과 교수 일동	재단법인 오일홍재단
(주)와이티케어스	덴버지회	식품영양학과 동창회	재단법인 임당장학문화재단
(주)우리은행 대구혁신도시금융센터	동아출판(주)	신문방송학과 23기	재단법인 투엘재단
(주)이화유니폼	디자인대학원	약학과 29기	재단전동문합창단 이화코러스
(주)진학어플라이	디자인대학원동창회	양서원출판그룹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42기
(주)티피치과기공소	디트로이트 지회	언어병리학과교수일동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43기
(주)학지사	마블러스 출산	연당장학회	정치외교학과 13기
2016년 이대부초 어머니연구회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영산교회	조산장학재단
2017~1학기 유아교육과 교육대학원 재학생 일동	미연합감리교세계선교부	영신금융공업	조형예술대학(ECAP)
8대 무용과 동창회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예림회	주식회사 코리아엘리베이터
ICSF	미용아트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	오스텝 임플란트	총동창회
KEFAMA	미주올랜도지회동창회	우성건영 주식회사	웰컴
LA Young Nak Church Alumnae	박경숙 산부인과	워싱턴 동창회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Northeastern Ohio Alumnae Association	법학과 13기	유아교육과 2017년 졸업생 일동	특수교육과 동창회
Southern California지회 동창회	보건교육콜로키움	음악대학66년졸업생일동	특수교육과동문교수모임
간호과학대학 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	의대동문교수(행림회)	평생교육원발전후원이사회
간호대7회동기	사학과 21기	의대동창회 15회	한국꽃예술학회
갈릴리교회	사회복지대학원동창회	의대동창회 16회	한사랑치과의원
경동교회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의료법인 한의의료재단	휴스턴지회 동창회
공연예술대학원 피아노교수학 동문회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의류직물학과 동창회	

약정기간 2016.5.1~2017.5.31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곳, 기부자 명예의 전당 Ewha Donors Wall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이 있다. ECC 지하 4층 다목적홀 앞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Ewha Donors Wall)’이 바로 그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 자리에는 이화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준 후원자들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이화의 후원자를 모두 기록하고 기념하는 이곳은 이제 이화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다. 고액기부자 이름(현재 300여 명)을 아날로그 월의 고급스러운 스틸 블럭에 소중히 새기고, 디지털월에는 소액기부자를 포함한 모든 기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후원자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남기고 있다.



아날로그 월 Analogue Wall

아날로그 월은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를 위한 특별 예우 공간이다. 기부자의 이름은 고급스럽고 견고한 스틸 명패에 새겨지며, 후면에 설치된 조명으로 인해 빛으로 이름을 새긴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기부 금액에 따라 블럭의 크기와 돌출 정도를 다양화하여 조형적으로 배치하며, 1년에 한 번씩 납입 현황에 따라 명패를 신규 제작하여 업데이트하고 있다.

디지털 월 Digital Wall

디지털 월은 작은 후원도 소중히 생각하는 이화의 정신을 담아 모든 후원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키오스크(KIOSK)와 연동되어 있어 기부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대형 화면에 후원자의 이름이 아름다운 배꽃 모션그라피로 구현된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고액후원자의 경우, 사진과 기부스토리 영상을 함께 수록하여 보여줌으로써 찾아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예우 (2017년 8월 현재)

- 공통 예우

 - 이화여자대학교 기부자 명예의 전당(디지털 월)에 이름남김 및 「이화소식」 등에 기부자 명단 수록
 - 온라인 생일카드, 신규약정·후원완납 감사카드, 온라인 「이화소식」 및 온라인 「연간보고서」 발송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 (총 약정액 300만 원 미만 기부자는 최초 1회 제공)
 - 후원자 ID카드 발급 :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카드 제시)
- 교내기관 : 도예연구소 작품(10%), 박물관 기획상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 편의시설 : 구내안경점(10~20%), 교보문고(5%), 닥터로빈(5%), 리치몬드(5%), 링크(10%),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이화인의 나눔가게(10%), 카페 네스카페(20%), 케세이호(10%), 호원당(10%), E-feel(5%), Soho & Noho(15%) 등

특별 예우		Ewha Honor Club**					
구분	예우 내용	밀알 (3백만원 이상)	나눔 (1천만원 이상)	섬김 (5천만원 이상)	이화 美 (1억원 이상)	이화 善 (3억원 이상)	이화 眞 (10억원 이상)
후원자 이름 남김	장학기금 명명	●	●	●	●	●	●
	해당 건물 후원자 기념판 (건축기금 후원 시)	●	●	●	●	●	●
	해당 공간에 후원 현판 부착 (건축기금 후원 시)			●	●	●	●
	건물 등의 공간 명칭 부여				● 5억 원 이상	●	●
기부기사 홍보	홈페이지 온라인 명예의 전당		●	●	●	●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아날로그 월)*				●	●	●
	「연간보고서」에 기부자 사진 소개			●	●	●	●
	「이화소식」에 기부 기사 게재			● 3천만원이상	●	●	●
발송 및 증정	이화 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	● 3년간	●	●	●	●	●
	「연간보고서」 발송	● 이메일	●	●	●	●	●
	「이화소식」 발송	●	●	●	●	●	●
	창립기념 후원자 감사패 증정*		●	●	●	●	●
특별 초청 및 위촉	신규약정 선물 및 감사장 증정		●	●	●	●	●
	총장초청 오찬 초대			●	●	●	●
	장학후원이사회 이사 위촉 및 행사 초청 (장학기금 후원 시)			●	●	●	●
	이화아너스클럽 회원 위촉 및 특별행사 초청**				●	●	●
무료 이용권 (1가구/기업당 1건)	기금전달식 개최				●	●	●
	도서관 대출증*	●	●	●	●	●	●
	무료 주차증				●	●	●
	국제기숙사 이용(본인)		50%	50%	50%	50%	50%
할인 혜택 제공 (후원자 ID카드 제시)	고사리 수련관, 금란서원 이용 (본인/직계)	5%	15%	30%	50%	50%	50%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수강*	10%	40%	50%	50%	50%	50%
	색채디자인연구소 수강	10%	10%	20%	20%	20%	20%
	언어교육원 수강		20%	50%	50%	50%	50%
참고	ECC 피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50%	70%	무료

- 참고

 - *표시된 예우는 납입액 기준으로 예우해 드립니다.
 - **Ewha Honors Club(이화아너스클럽)은 2006년 이후 약정이 있는 분 중에서 총 약정액이 1억 원 이상인 기부자에게 자격을 드리며, 최소 약정액의 20%(2천만 원) 이상 납입 시 특별한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 색채디자인연구소 수강료 할인: 색채디자인 전문가 인증교육과정, 전통색채·민화연구 교육과정에 해당
 - 추가·수정되는 예우 내용 및 할인 업체는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giving.ewha.ac.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원 이용 예우		밀알 (3백만 원 이상)	나눔 (1천만 원 이상)	섬김 (5천만 원 이상)	이화 美 (1억 원 이상)	이화 善 (3억 원 이상)	이화 眞 (5억 원 이상)
건강검진	예우내용	15%	30%	40%	50%	80%	무료
	본인 및 배우자	15%	30%	40%	50%	80%	무료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금)	직계 존비속	—	20%	30%	40%	60%	90%
	본인	5%	15%	20%	30%	40%	60%
영안실 이용	배우자	—	—	—	10%	20%	50%
	본인	—	5%	10%	20%	50%	무료
외래, 입원 우선권	배우자	—	—	—	10%	20%	30%
	본인	—	●	●	●	●	●

- 참고

 - 의료원 이용 예우는 납입액 기준으로 예우해 드립니다
 - 목동 의료원 원무과에서 후원자 ID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예우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 기공료(보철료) 및 진료재료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안실 이용료는 염습료, 안치료, 빈소임대료, 수시 및 제반 용역비, 청소료를 말합니다.
 - 진료비 감면(본인부담금) 할인율은 외래진료와 연간 180일 이내 입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안내

이화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부 참여 방법과 세제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이화여자대학교의 비전 실현에 큰 힘이 됩니다.

참여방법

발전기금 약정방법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은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발송,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 우편·팩스·이메일·문자 약정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팩스, 이메일(파일첨부) 또는 문자(사진첨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주소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204호 대외협력처

전화 02-3277-2927, 3969 **팩스** 02-392-3473 **이메일** ewha21@ewha.ac.kr **문자** 1666-0531

02 온라인 약정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giving.ewha.ac.kr) 의 '온라인 약정' 메뉴를 통해 약정하실 수 있으며,

무통장입금, 자동이체(CMS), 급여공제, 휴대폰·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입금방법

01 무통장입금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140-001-081822	이화학당
우리은행	107-04-102624	
KEB하나은행	048-22-01036-4	

02 자동이체(CMS) 약정서에 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매월 자동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출금일 15일/30일 중 선택)

03 급여공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이화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30%를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이화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거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해외 참여

미주지역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을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화국제재단을 통해서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dres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475 Riverside Drive #1505, New York 10115

Tel (212)864-5759 **Fax** (212)864-2552 **E-mail** ewhafdn@gmail.com **담당자** 송지예(Ji-yei Park, Executive Director)

기타 해외지역

약정서를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해외은행 발행의 개인수표를 대외협력처로 보내주시거나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계좌정보 **Bank Name** Shinhan Bank **Account No.** 140-001-081822

Account holder Board of Trustees, Ewha Womans Univ. (이화학당)

Swift Code SHBKRRSE

Address Ewha Womans Univ., Office of University Relations & Development,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2927, 3969 **Fax** 82-2-392-3473 **E-mail** ewha21@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기부자 정보

성명(상호명) ☐ 익명 희망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본교 관계	☐ 동창	전공	입학/졸업년도
	☐ 교직원		대학/처과
	☐ 일반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직장 정보	직장명	소속	직위

약정 정보

기부 용도	학생	☐ 이화해피펀드	연구	☐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장학	☐ 이화미래설계장학금	교육인프라	☐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	
		☐ EGPP장학금	장기발전	☐ 총장미래전략기금	
		☐ 선배라면장학금		☐ 단과대학기금	
		☐ 기타 []		[]	
기부 금액	☐ 자유후원 _____ 원(W) ○ 일시납부 (납입예정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분할납부 (분납 횟수 : _____ 회, 월 분납액 _____ 원)				
	☐ 월 정기후원 ○ 20,000원 ○ 3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기타 (_____ 원)				
납부 방법 선택	☐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예:820806)		
		이체일	○ 15일 ○ 30일		
	☐ 무통장입금	신한 140-001-081822 예금주)이화학당	우리 107-04-102624 예금주)이화학당	KEB하나 048-22-01036-4 예금주)이화학당	
	☐ 교직원 급여공제 _____ 급여일(25일)에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매월 12일 이후 약정은 다음달 급여일부터 공제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약정인 _____ (서명)

-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상단 '익명 희망'에 체크해 주세요.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V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우 동의	☐ 예우선물, 예우카드, 홍보책자 수신	☐ 기부자 명단 게재	☐ 이메일 수신	☐ SMS 수신
-------	--	------------------------------------	---------------------------------	---------------------------------

후원 신청은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ing.ewha.ac.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약정' 메뉴를 통해 후원 (모바일 접속 가능)
- 약정서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 1666-0531로 송부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2927, 3969 **Fax** 02-392-3473 **E-mail** ewha21@ewha.ac.kr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대외협력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4조에 따라 기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약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 이용 목적 : 약정 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관리 및 예우
 - 수집 항목
 - 1) 필수항목 : 성명, 본교관계, 주소 및 전화번호(주택 또는 직장), 휴대전화번호, 약정금액, 기부용도, 납부정보(기간·방법·일자), 각종 예우 동의(예우선물·예우카드·홍보책자·이메일·SMS 수신/기부자 명단 게재)
※법인은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2) 선택항목 : E-Mail, 직장정보, CMS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이체일), 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이화소식지, 연간보고서)에 게재되는 기부자 명단에는 성명, 기부금액, 본교관계에 한해서 표시됩니다.
 - 보유 · 이용 기간 : 준영구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내용 : 기부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 약정 신청 및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수집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외협력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277-3969 / ewha21@ewha.ac.kr

☐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및 이용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CMS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이용 목적 : CMS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 항목 :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 이용 기간 : CMS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내용 : 기부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대외협력처가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CMS 자동이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약정 방법



1666-0531

휴대폰 문자발송

약정서 작성 후 사진으로 찍어 문자수신전용 번호로 발송

1666-0531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의 온라인 약정 페이지에서 후원신청

http://giving.ewha.ac.kr



팩스 발송

약정서 작성 후 팩스로 발송

02-392-3473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01.01~2018.12.31

서울 서대문 우체국
승인 제40300호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EWHHA WOMANS UNIVERSITY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204호

Ewha Womans University
Office of University Relations & Development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03760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연간보고서는 이화의 후원자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후원의 결실을 전하는 기금 보고서입니다.

발행인 김혜숙 발행일 2017.09.21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02-3277-6827